

정 헌 목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로)

1.

지난해 말 처음 대학원 온라인 저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뒤로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올해 2015년의 시작과 함께 몇 차례 예비모임을 가지며 저널의 틀을 잡았고, 1월 중순에는 대학원 워크숍 자리를 빌려 저널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이번 1집에 한해서 박사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편집진을 꾸리기로 하였고, 뜻을 함께 한 많은 선후배 제학들의 참여와 함께 본격적인 저널 발간 준비에 돌입했다. 어찌다 보니 필자가 편집책임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되었고 결국 이 글까지 쓰게 되었는데, 필자의 부족한 재주 탓에 저널을 채운 훌륭한 글들에 어울리지 않는 소개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을 듯하여 걱정이 앞선다.

먼저 '인류학과 대학원 저널'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여 탄생했는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을 듯싶다. 이미 제도권 학계에 좋은 학술지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왜 대학원 저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술지들이 심사탈락률과 같은 한국연구재단의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계의 현실에서 '등재지'라는 이름의 기존 창구는 한계를 지니기 마련이다. 학계가 등재지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개별 연구자들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기 검열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각각의 학술지에서도 특정한 학문적 주제에 초점을 맞춘 기획특집의 존재는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등재 학술지가 각 연구자들의 양적인 업적 평가를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주도적으로 학계의 새롭고 다양한 이슈를 개발하여 끌고 나가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 저널의 필요성이 제시된 것은 이 같은 학계의 분위기에 대한 대학원 내의 문제제기에 의해서였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학원 저널이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공식적인 학술지들보다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학원 저널의 일차적인 목표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떠나 기존 학계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해 내고, 그에 대한 상호 논평의 과정 전반을 공개하여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학원 저널의 구성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이 정해졌다. 우선 매 호마다 편집진의 재량으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특집'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저널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기획특집의 주제로는 저널이 발간되는 시기의 사회적 이슈와 호흡할 수 있거나 학계의 공식 통로로는 다루기 쉽지 않은 논쟁적인 학술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저널의 형식으로는 논문의 당락이나 질적 수준을 판별하는 비공개 심사가 아니라, 연구자의 결과물에 대한 동료의 논평과 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자의 원고와 다수의 논평, 저자의 답변이 하나의 논문을 이루는 저널인 『Current Anthropology』의 방식을 참고하여 저널의 기본적인 형식을 구성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대학원 차원에서의 재조명을 시도하기로 했다. 과거와 현재의 대학원 구성원 스스로가 생산한 학위논문뿐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바 있는 학술지 논문 등 다양한 결과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개적인 상호 논평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서평과 연구동향 소개, 현장연구 경험 소개 등과 같은 다양한 글들을 포함시켜 대학원 저널을 풍성하게 가꾸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상하기 시작한 대학원 저널의 이름은 인류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당선작으로 결정된 것은 총 9편의 후보작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Anthro彼我’(앤스로피아, Anthropia)라는 이름이었다. ‘Anthro彼我’는 인류학을 가리키는 단어인 anthropology에서 ‘anthro’를,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topos에서 ‘pia’를 가져와 붙인 이름으로, 이때 뒤의 피아(彼我)는 한자로 자신과 타자를 아울러 가리키는 표현을 가리키기도 한다. 서로 다른 다양한 연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인류학 논의를 행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원 저널에 적합한 이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저널을 게시하고 대학원생들의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온라인 공간으로 ‘anthropia.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대학원 저널 『Anthro彼我』는 이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가능하며, 별도의 로그인 없이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역시 누구든지 평가와 감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서는 학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원을 결정해 주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님들께 대학원생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리고 싶다.

2.

지금까지의 소개가 『Anthro彼我』 탄생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번 창간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창간호의 기획특집은 “그 날 이후: 세월호라는 현장”이라는 이름의 주제를 선정했다. 『Anthro彼我』 발간 한 달여 전인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1주기를 맞아 편집진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를 뒤흔든 ‘세월호’와 관련한 논의들을 모아 보기로 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접속하는 한편, 인류학도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자 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글로 정제해 낸 네 명의 필자들이 참여하여 기획특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5년 5월 초에는 이번 주제를 다룬 대학원 콜로키엄을 개최하여 투고자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도 함께 담아내고자 하였다. 치열했던 이 날 토론의 주요 내용은 네 편의 글에 이어 “기획특집 콜로키엄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다섯 쪽지의 논의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세월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상처를 성찰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다음 섹션인 「일반논문」과 「논문 리뷰」는 본격적으로 저자와 논평가 간의 상호토론이 합을 이뤄 하나의 논문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채워졌다. 「일반논문」에 실린 두 편의 글은 각각 다른 기회에 준비했던 원고를 더욱 발전시킨 결과물이며, 여기에 두 편씩의 논평과 저자의 답변을 포함시켜 한층 풍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향후 발간될 『Anthro彼我』 제2집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반영될 좋은 전통으로 남기를 희망한다. 「논문 리뷰」는 『Anthro彼我』에서 새로 도전한 시도로,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편의 흥미롭고 의미 있는 석사학위논문들을 선정하고 각각 두 명의 논평가들을 섭외하였으며, 「일반논문」과 마찬가지로 논평들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받아 한 편의 글로 담아내었다. 이어 최근에 출판된 본인의 논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오창현의 논의를 리뷰 대상으로 삼아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실었다. 「일반논문」과 「논문 리뷰」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시도에는 인류학 내 하위분야의 경계를 넘어 투명하고 생산적인 학술 논쟁의 장을 전개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어지는 섹션인 「서평」에서는 Jean Comaroff의 『Body of Power, Spirit of Resistance: The Culture and History of a South African People』을 선정하여 종교와 저항에 관한 저자의 논의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연구동향 소개」에서는 신경인류학(Neuroanthropology)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관한 흥미로운 소개가 이어진다. 마지막 섹션인 「필드에서」에 실린 글은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드는 멋진 에세이다. 현장(field)에서 인류학도가 겪기 마련인 감정적 혼란과 두려움을 문학적으로 그려 낸 이 글은 특히 본격적인 현장연구(fieldwork)를 앞둔 대학원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글이기도 하다. 각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데 아낌없었던 세 분의 필자, 그리고 한 분의 감상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여 저자와 논평자를 모두 포함하여 총 22분의 참여로 『Anthro彼我』 창간호가 완성되었다. 대학원 저널 발간 소식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투고에 나선 다수의 저자들과 편집진의 투고 제안에 기꺼이 원고를 보내준 저자들 덕분에 저널의 틀이 설 수 있었으며, 편집진의 섭외에 날카로운 논평들로 화답해 준 논평가들 덕분에 저널의 살이 채워질 수 있었다. 현장연구나 학위논문 작성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 소중한 글들을 완성해 주신 필자들에게 편집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편집진, 특히 편집책임을 맡은 필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창간호가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자와 논평가들 덕분이다. 여기에 또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Anthro彼我』 발간 소식을 듣고 ‘문화연구동인 이수라장’에서 찬조금을 보내주셨는데, 이 돈은 창간호에 한해 인쇄본을 몇 부 제작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인쇄비용을 지원해 주신 ‘문화연구동인 이수라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고 싶다.

3.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필자가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당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마치 전설처럼 전해져 온 『茱莉書畵』(이하 ‘말리서사’)라는 대학원 문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석사과정에서 처음 인류학으

로 전공을 바꿔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필자가 신입생으로 처음 참석했던 개강총회 자리에서부터 이후로도 수 년 동안 대학원 자치회는 ‘말리서사’ 2집의 발간에 관한 논의를 해 왔다. 몇 년 전 구체적인 발간 방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한 차례 있었으나 결국 그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지금까지 ‘말리서사’ 2집은 발간되지 않았다. ‘말리서사’ 1집이 나온 것이 2000년의 일이니,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셈이다.

편집책임의 입장에서, 『Anthro彼我』 창간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역시 15년 전의 대학원 문집인 ‘말리서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말리서사’와 『Anthro彼我』는 다르다는, 아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대학원 문집’이었던 ‘말리서사’와 달리 『Anthro彼我』는 대학원을 기반으로 하되 ‘저널’을 표방한다는 차이가 있다. ‘말리서사’가 장장 1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된 반면, 『Anthro彼我』는 투고자 모집부터 최종 편집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3개월이었다. 제작기간의 차이에 따른 양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 차이와 무관하게 여기서 중요한 점은 『Anthro彼我』가 ‘저널’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 발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단발의 기획으로 끝난 ‘말리서사’가 해내지 못한 과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저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그것, 그건 바로 주기적인 발간의 지속이다.

물론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말리서사’의 머리말과 지금 이 글 사이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2000년 발간된 ‘말리서사’의 서두를 장식한 명문인 『茉莉書舍』開店에 부쳐와 필자가 끄적인 (문체와 내용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이 조악한 수준인) 이 글 사이에는 구성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15년 전 발간된 대학원 문집의 머리말에서 2/3 가량이 문집 발간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학과로부터 재정지원을 얻어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에 대한 내용에 할애되어 있다면,¹⁾ 이 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한 페이지도 채 안 되는 분량으로 짧게 다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말리서사’의 머리말을 작성한 안승택 학형과 비교하여 한참 모자란 필자의 필력 탓도 있지만, 지난 15년간의 상황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존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심의 구조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배 인류학자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봤기에, 일종의 대안적 학술지로서 대학원 저널이 지닌 정당성은 구구절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정지원 역시 적어도 학과와의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얼핏 보기에 1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대학원생들이 자치적인 학술활동을 펼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5년 전과 비교하여 대학원의 양적인 규모는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때와 다른 형태의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원이다. 장기간에 걸친 공통의 기획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각각의 세부 하위전공별로 나뉜 성격이 강해진 현재의 대학원은 구성원 서로가 관심을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학원에 지원되는 자원의 양은 많아졌을지 모르나 그것이 학문공동체로

1) ‘말리서사’의 머리말은 anthropia.kr 사이트의 저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년 전 ‘말리서사’가 빛을 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 분은 머리말의 서두를 읽어보시길 바란다.

서 대학원 자치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분과학문으로서 인류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은 더욱 약화-여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지만-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형성과 점차 가속되는 대학원의 파편화 현상은 학문에 뜻을 품고 대학원으로 진학한 개개 구성원들로 하여금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 대학원이 처한 현실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가 단지 우리 대학원 자체만의 내부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인류학계 전반, 아니 어쩌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 배태된 문제가 대학원으로까지 확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의 대학원생들 스스로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시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 학계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거시적인 문제들을 바꿔 나갈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부터라도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nthro彼我』의 창간 기획은 그러한 시도의 일환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앞서 언급한 『Anthro彼我』의 당면 과제, 즉 주기적인 발간의 지속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래할 『Anthro彼我』 제2집 이후의 발간을 위해, 창간호에서 잘 되었다고 판단한 지점들을 바탕으로, 또한 창간호 준비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갈등을 거울삼아 몇 가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Anthro彼我』는 인류학의 다양한 하위분야들을 아우르는 저널이 되어야만 한다. 특정한 하위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저널을 계속해서 기대한다. 둘째, 투고자와 논평자로 참여하는 대상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간호에서는 준비시간의 제약을 비롯한 여러 한계로 서울대 인류학과와 재학생 혹은 최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신 학교나 현재 소속과 무관하게 다양한 연구자들이 『Anthro彼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차 언급하지만 ‘대학원 문집’이 아닌 ‘저널’로서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셋째, 복수의 저자와 논평자가 함께 하는 상호 논평이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특히 논평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바로 앞에서 제안한 저널 참여자 폭의 확대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 이렇게 필자가 제안한 원칙들은 별개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Anthro彼我』 발간이라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